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금

학교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10월 22일(월) 기획단 회의실에서 학교도서관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변우열(공주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이순옥(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이덕주(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오순문(지식정보기반과 과장), 홍강표(지식정보기반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도서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안)(2004.7.14, 김재윤의원 등 14명 발의) 중 제12조(사서교사 등 배치)가 교육위원회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가결(2007.9.17.) 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2007.9.18.)됨에 따라 학교도서관계 및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학교도서관계는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충실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사서교사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원확보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강제조항으로 할 경우 사문화되어 오히려 학교도서관 진흥을 저해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기획단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1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2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개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0월 23일(화)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작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진원(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희윤(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기용(기용건축연구소 대표), 홍은희(명지대 교수) 위원 등은 장서의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폐기보다 재활용이 중요하며, 장서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폐기 기준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소위원회에서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 ‘작은도서관 관계자 연찬회’ 행사 참석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은 10월 24일(수) 국립중앙도서관과 순천시가 공동주최한 “작은도서관 연찬회” 행사에 참석하여 “도서관 정책과 방향”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한상완 위원장은 강의에서 위원회 및 기획단 발족,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복합문화시설로의 기능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도서관인프라 확충 등 도서관 관련 법·제도 및 사회 환경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국민 문화복지 핵심기로서 역할을 확장하여 국민의 행복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와 기획단은 국가도서관 시스템의 선진화와 세계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여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표준운영절차 제정 관련 실무TF 회의 개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10월 24일(수) 기획단 회의실에서 공공도서관 표준운영절차 제정을 위한 실무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표준운영절차 제정은 업무절차(과정)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금

관리와 업무성과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제고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도서관 실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선언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각종 매뉴얼, 규정 등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며, 표준운영절차 제정과 병행하여 도서관 이용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TF에서 마련한 표준운영절차(안)은 각 시·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11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10월 31일(수) 기획단 회의실에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회장: 정문영 백석대학교 교수) 최충식(사무국장: 백석대학교 과장), 박노경(부회장교 가톨릭대학교 과장) 등 아홉분을 모시고 신학도서관 현황과 교회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서관간 협력방안 모색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신학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향후 기획단에서는 사서자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중무실 등과 협의하여 도서관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도서관현장 정책탐방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정책 수립·추진에 따른 현장의 실태파악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탐방을 실시한다. 10월 29(월) ~ 12월

15(토)까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을 비롯한 10여개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2일(금)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을 방문하고 도서관건립, 자원봉사 및 방과후 도서관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11월 6일(화)에는 2007년 개관한 의정부과학도서관 및 의정부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고 두 도서관에서 시행중인 예약대출기와 반납기를 활용한 24시간 대출·반납 서비스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활성화와 부족인원 해소방안으로 예약대출기와 반납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방문 : 한현경, 한상현, 조생단)



(의정부과학도서관, 의정부어린이도서관 방문 : 전병화, 정진호, 송준용, 한현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금

대전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실무회의 개최

11월 9일(금)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조정팀(팀장 : 이선)은 지난 9월 20일(목)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대전한밭도서관을 방문하고 대전광역시 및 한밭도서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조례제정, 지역대표도서관 조직 및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등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 : 이선(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조정팀장), 조생단(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조정팀), 박종득(대전

광역시 문화예술과장), 김상휘(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강홍철(한밭도서관장), 김기주(한밭도서관 사서과장), 김혜정(한밭도서관)



[기사 및 사진제공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Bill & Melinda Gates 재단

2008 '배움의 기회제공상' (Access to Learning Award) 신청접수

'배움의 기회제공상' (Access to Learning Award)은 빌 게이츠 회장이 지난 2000년 설립한 Bill & Melinda Gates 재단이 미국 이외의 전세계에서 공공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위한 혁신적인 정보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한 공공도서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로 구성되며, 매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는 미화 백만달러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2008년 배움의 기회제공상의 후보가 되기 위한 서류제출 마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Bill & Melinda Gates 재단의 홈페이지(<http://www.gatesfoundation.org>)를 참고하면 된다.

협회소식

도서관실무편람(가칭) 편찬위원회 제3차 회의

- 일시 : 2007.11.9.(금) 11:00~13:0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이용남(위원장), 광동철, 김정현, 김지봉, 남영준, 문영철, 서혜란, 윤희윤, 이상복, 조현양(이상 위원), 이용훈, 심효정, 박현우(이상 사무국)
- 불참자 : 송기호, 정현태, 최희윤, 홍기철(이상 위원)
- 안건
 - 1) 각 장(Chapter)별 책임자들이 구성한 세부항목(안)에 대한 토의
: 세부항목의 중복 부분 확인과 장간 조율
 - 2)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보완점에 대한 논의
 - 3) 도서관실무편람 분량에 대한 논의
 - 4) 기타
- 회의내용
 - 1) 제1장 총론, 제7장 정보검색시스템, 제9장 도서관 인력개발에 대한 세부 목차 논의
 - 제1장 총론(광동철위원)
 - 1.5 도서관 관련단체 - 제9장의 1.4 전문단체와 중복가능성 검토
 - 1.3 '문헌정보학'을 1.5로 보내기로 함.
 - 1.4 '도서관정보정책'을 '도서관정책'으로 수정하기로 함.
 - 제7장 정보검색 시스템(조현양위원)
 - 장 제목에 대한 논의: 정보검색시스템(현행)에 대해, 디지털시스템, 디지털도서관, 정보의 기술과 표준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최종적인 제목은 장의 책임위원인 조현양 위원이 결정하기로 함.
 - 4절 '디지털 자원의 관리와 정보서비스': 제2장 도서관 서비스(남영준 위원), 제3장 장서관리(홍기철 위원), 제4장 자료조직(김정현 위원)과의 중복 가능성 검토
 - 제7장의 경우 시의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이므로

자주 바뀔만한 부분의 내용은 가능한 후반부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7절 '저작권' 부분은 특론 또는 후반부로 보낼 것.
- 4절 '디지털 자원의 관리와 정보서비스' 부분도 후반부로 보낼 것.
- 인터페이스, 포털, 정보기술부분 강화하면 좋겠음.
- RFID같은 부분은 제3장 장서관리나 제4장 자료조직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음.

· 제9장 인력개발(이상복위원)

- 제5장 도서관경영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함.
- 4절 '인력개발'을 '인력개발 및 관리'로 제목을 변경 후 5절, '노서관리'를 4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음.
- 2절 '인력자원'에서 자원봉사자도 다루면 좋겠음.
- 2절 '인력자원'에서 5. 비정규직, 임시직원, 6. 파견, 위탁직원 등의 항목은 통합해서 조정기로 함

2)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보완점에 대한 논의

· 제2장 도서관 서비스(남영준위원)

- 8절 '정보서비스 실무' 제7장 도서관 인력개발(이상복 위원) 부분과 중복 가능성 검토
- 8.3 참고정보원 부문도 제3장 장서관리(홍기철위원) 부분과 중복 가능성 검토
- 6절 '도서관 프로그램' 제5장 도서관경영(서혜란 위원)과 일부 중복 가능성 검토
- 홍보활동, 마케팅, 문화프로그램 등의 중복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세부목차를 정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최종 결정기로 함.
- 8.4 참고서지기술을 추가기로 함.

- 제2장 '도서관 서비스' 제목을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도서관법」에 제시된 용어인 '도서관 서비스'로 하기로 함.

· 제5장 도서관경영(서혜란위원)

- 도서관 경영의 경우 관종별 경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집필하고 나면 여러 부분과 중복가능성이 예상됨. 최종 조절 필요함.
- 3절 '정보기술의 발전과 도서관경영' 제7장 정보검색

소식 N·E·W·S

시스템과 중복 가능성 검토

· '3.2 도서관 홈페이지의 설계와 운영' 제7장과의 중복 가능성 검토

· 제3장 장서관리(흥기철위원)

-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부분 제3장 장서관리(흥기철 위원) 쪽으로 들어갈지, 제7장 정보검색시스템(조현양 위원) 쪽으로 들어가야 할지 논의 필요

: 제3장 장서관리(흥기철 위원)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인쇄자원보다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좋겠음.

-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적인 내용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자료의 형태적인 부분보다는 수집, 관리, 서비스, 계약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실무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료평가, 전자자원의 선택기준 등 핫이슈가 되는 부분을 강조하면 좋겠음.

- 온라인자원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음.

- 기존의 단행본을 참고해 압축된 형태로 기술하면 좋겠음.

※ 3장 장서관리 부분에 대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용남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흥기철위원과 의견조율을 할 것임.

3) 도서관실무편람 분량에 대한 논의

· 분량

- 각 장마다 A4 60페이지를 상한선으로 하고, 전체분량 760~800페이지 정도로 함.

· 범례작성

- 각 위원들이 의견을 사무국에 보내기로 함.
- 사무국 담당자가 위원장과 최종정리기로 함.

· 원고청탁

- 각 장의 책임위원이 각 집필자 및 원고분량을 사무국에 알려주기로 함.
- 사무국에서는 최종정리 후 범례와 함께 공문을 각 집필자에게 발송하기로 함.

4) 기타 안전 :

· 집필위원들한테는 집필 내용을 확인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이용남 위원장)

· 집필자는 현장과 학계가 적당히 안배되면 좋겠음.(이용남 위원장)

· 한국법학회 등에 의뢰하는 방법 등 저작권 분야 집필자를 전문가로 하면 좋을듯 함.(곽동철 위원)

· 저작권 부분을 '특론'으로 빼면 좋겠음.(곽동철 위원)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체험 자율연수(교사대상) 실시



우리협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체험 자율연수(교사대상)”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비폭력대화 Change, 신문활용교육 NIE),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도서관탐구생활), 서울정독도서관(마인드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독서치료), 송곡고등학교도서관(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등 서울시내 5개 도서관에서 10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총 5회에 걸쳐, 30여명의 교사와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연수 참가자들은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전문위원회

분류위원회 2007년도 제3차 회의

- 일시 : 2007년 10월 27일(토) 10:00~13:3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남태우(위원장) 강순애, 곽철완, 김비연, 박재혁, 배영활, 서경은, 오동근, 황면(이상 위원), 이경구(사무국)
- 안건 : 1) 위원별 담당 분야 계획서 발표
2) 기타
- 회의 내용
1) 담당 주제별로 연구해 온 내용을 발표함.
(여지숙 위원이 참석지 않아 배영활 위원이 500분야 설명)
: 담당 분야별 위원 의견 및 이에 대한 논의
 - 개정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주제별로 KDC, NDC, DDC, 중국도서관분류법, 중국도서분류법 등의 조건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음.
 - 해당 주제의 용어사전이 필요할 시, 사무국에서 공급하겠음.
 - 동양학·한국철학 등의 분류를 위해 사용치 않고 있는 “120”의 사용을 고려했으면 함.
 - 북한자료를 위해 통일부의 자료 분류 방법 검토가 필요함.
 - 경영학 관련 자료의 양이 많아 “320(경제)” 분야에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어 거의 사용치 않는 “310(통계학)” 부분의 기호 활용을 고려함.
 - 행정학 이론서가 모두 “350”에 분류되고 있고 “351-357”은 각각 행정으로 되어 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351-357”부분을 적극 활용했으면 함.
 - 국악에 동양음악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국악분류 전반에 대해서는 국악원자료실 등과의 협력이 필요함.
 - 분류 항목에 현대 언어를 조화롭게 삽입해야함.
 - “전산”이란 단어처럼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음.

- 기존 분류 기호의 교체, 미사용 분류번호(예:120), 거의 사용치 않는 번호(예:311-317)의 사용 문제는 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위와 같은 문제는 안을 만든 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묻기로 함.
 - 대폭개정은 반드시 필요함. 지난 세월보다 앞으로의 자료가 더 많음.
 - 중국·일본의 고유명사는 모두 추출하여 국어연구원 등 전문가에 의뢰, 원 발음을 확보해야 함.
 - 아동도서의 분류표 작성 문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실무책임은 이경구 사무총장이 맡기로 함.
- 2) 기타 : 제4차 회의 일정 및 준비
- 일정 : 12월 8일(토) 10:00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안건
 - 기존표와 개정(안)의 대비 표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함.
 - 표준 구분표 등 조기성 기호는 관련 주제의 담당 위원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예 : 지역구분표-‘역사’ 담당위원)

국제교류위원회 2007년도 제 1차 회의

- 일시 : 2007년 11월 8일(목) 17:3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조현양(위원장), 김성희, 박은봉, 최재황(이상 위원), 이현주, 김태경(이상 사무국)
- 불참자 : 박소연, 이안나, 한종엽(이상 위원)
- 안건
 - 1) Taylor & Francis Group의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제3판의 “The Overview of South Korea” 내용 집필 및 집필자 선정에 관한 일
 - 2) 기타 :
 - 2008퀘백세계도서관정보대회 대표단 모집에 관한 일
 -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회의 내용

1) 기타 안건 중 "2008세계도서관정보대회 대표단 모집에 관한 일"

· 사무국에서 회의안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안으로 국제교류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사무국의 관련 업무진행에 참고하고자 함.

- 회원들은 협회장 명의의 공문이 없으면 참석이 어려우므로 협회에서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회참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단체 일정 진행시 자유로운 개인활동의 어려움이 있다는 면 등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

-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모스크바 대회, 더반대회 등에서 위험상황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감이 큼.
-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에게 대회참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정여행사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대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함.

· 위원들의 의견

-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문이 필요하므로, 협회에서 이 일을 계속 해 주는 것이 좋음.

- 처음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가 되었을 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대다수의 회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해 줄 것을 희망할 것임. 협회가 회원서비스 기관으로서 "전적으로 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회원으로서 불만 요인이 될 수 있음.

· 결론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에 대한 업무는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협회를 통해 대회를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회원들에게 의견 조사(설문, 전화 조사)를 하여 불만사항과 개선점을 듣고, 실무에 반영토록 함.

- 대회참가에 대한 제반비용의 문제는 주관여행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2) 일본, 중국도서관협회와의 상호교류 현황을 국제교류위원회 위원들에게 사무국에서 알림.

- 우리협회와 일본, 중국도서관협회 등은 협회차원에서 교류협정을 맺고 교류하여 옴.

3) Taylor & Francis Group의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제3판의 "The Overview of South Korea" 의 내용 집필 및 집필자 선정에 관한 일

- 위원장 : 관련사항을 회의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위원들이 각각 한 분야 씩을 담당하여 집필할 것을 요청하고, 담당분야를 결정함. 또한 불참한 박소연 위원과 한종엽 위원에게도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배분함.

· 집필 담당분야 결정

- 서론(조현양 위원장) :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간략한 서술.

- 문헌정보학(박은봉 · 박소연 위원)

: 도서관법에 관한 개요, 국가도서관, 대학·연구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디지털장서와 서비스, 전문직과 전문직 교육 등.

- 기록관리학(최재황 위원)

: 관련 법률에 관한 개요, 국가기록원과 서비스에 관한 기술, 국가, 지역, 대학 등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요, 전문직과 교육 등.

- 박물관학(김성희 위원)

: 국립박물관 등 주요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기술, 미술관(Art Museums and Galleries), 자연사 박물관, 고고학, 유적 및 유적지, 전문직과 전문직의 교육 등.

· 결론(조현양 위원장)

· 참고사항

- 최종 완성된 원고에 대한 전체 형식의 일관성 확인 및 정리 : 한종엽 위원

- 참고자료: Libraries in Korea(2006서울세계대회조직위원회 발간자료)

- Taylor & Francis Group의 Writing and Articles

for ELIS에 준하여 작성

- 2007년 12월 15일까지 영문으로 작성완료하여 위원장에게 송부
- 최종 원고의 확인은 위원장이 원어민에게 의뢰할 것임.
- 이후 12월 말까지는 출판사에게 보낼 것임.
- 위원장은 협회 사무국에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요청함.
 - 집필진에 대한 출판사와 협회측의 특별한 사례가 없는 대신 출간시 집필진 명단이 원고에 들어가는 것을 출판사에 확인해 줄 것.

기획정책위원회, 권익협력위원회, 2007년도 제1차 연석회의

- 일시 : 2007년 11월 9일(금) 14:00~16:15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 기획정책위원회 - 윤희운(위원장), 김지봉, 김태식, 장덕현, 조영추(이상 위원)
 - 권익협력위원회 - 문영철(위원장), 김경자, 백중석(이상 위원)
 - 이경구, 신재은(이상 사무국)
- 불참자 :
 - 기획정책위원회 - 정현태, 최희운(이상 위원)
 - 권익협력위원회 - 김상태, 김일환, 유광호, 이지호(이상 위원)
- 안건 : 1) 대학도서관연합회 정관 검토 및 대책 협의
 - 2)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기준에 관한 협의
 - 3) 기타 : 정관개정 방향, 사무국 조직개편, 경기도 도립수원도서관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
- 회의 내용
 - 1) 대학도서관연합회 정관 검토 및 대책 협의
 - 윤희운 기획정책 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함.
 - 윤희운 위원장, 이경구 사무총장에게 경위설명을 요청함.
 - 대학도서관연합회(이하 대도연) 발족에 관한 경과 설명. 한국도서관협회(이하 협회)와 대도연의 원원 전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도연 설립개요에는 협회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했으나 사무



국이라면 몰라도 협회에 대한 지적이라면 부당하다고 말함.(이경구 사무총장)

- 대도연 정관 만드는데 실무를 담당했고 3개 협의회에 오늘(11/9)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임.(김태식 위원)
- 대도연의 설립개요에는 협회가 바탕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정관을 만드는 데 아무런 의논도 없었고 정관 어디에도 협회가 바탕이 된다는 근거는 없음. 내용도 1주일전에 비공식적으로 입수해서 도서관계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임. 회비문제도 그동안은 개별 도서관으로 부더의 징수는 언급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사무총장)
-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교육부에 문의했더니 회비를 받아야 된다고 함.(김태식 위원)
- 대도연 정관에 한국학도서관협의회(이하 의도협) 정관처럼 협회와의 관련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명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사무총장)
- 대도연에 대한 지원액은 경상경비는 지원할 수 없고 특정사업인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음.(사무총장)
- 의도협때보다는 대도연 발족에 왜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의도협 선례를 알아봤으면 좋겠고 대도연에서는 정관에 대해 협회와 의논이 없었는데 대도연 정관과 협회 정관 모두 고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함.(윤희운 위원장)
- 저작권, DB 등과 관련하여 협회에 불만이 있다고 대도연

- 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정회도 없었고 의견수렴도 부족한 것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문영철 위원장)
 -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고 현실성 있는 원원 얘기를 하자.(사무총장)
 - 대도연이 주도적으로 협회 탈퇴를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개별회원의 탈퇴 개연성을 전제로 하자.(윤희운 위원장)
 - 협회와 의는 못했으니 문제점을 보내서 해결하자.(김태식 위원)
 - 예민한 부분까지 의논없이 정관(안)만 와서 당황했음.(문영철 위원장)
 - 대도연과 협회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길 바람.(윤희운 위원장)
 - 협회 탈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도연 정관 목적, 사업, 회원자격 부분 등에 협회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함(의도협 정관 참조).
 - '도서관단체총연합(가칭)' 추진에 대해서는 대도연이 발족하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게 좋겠다고 함.
 - 협회도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전문분야 특성에 맞도록 분권화해야 함. 커뮤니케이션이 안됐지만 대도연 태동이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함.(김태식 위원)
 -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 화가 나고 도서관계가 협회에 힘을 실어줘야지 따로 대도연을 만드는 것은 반대다. 회원교의 회비 이중부담은 예산편성이나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김경자 위원)
 - 대도연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공도서관, 학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며 도서관계 전반 기류와 다른 의견이 있는 대학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길 바람.(윤희운 위원장)
 - ※ 사무국에서 대도연측과 정관개정안 등을 협의바람.
- 2)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기준에 관한 협의
- 배경 설명(문영철 위원장)
 - 이 기회에 도서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설치 기준에 대해 지침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협회 차원에서 법학 전문 교수를 팀으로 구성해서 해당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준을 해석하자
 - 1, 2차 연구가 모두 끝났고 기준이 확정됨.(윤희운 위원장)
 - 기준은 나왔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해줘야 함.
 - 심사하는 쪽이나 심사받는 쪽 모두를 위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
 -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에 지침을 해석해서 제출해야 함.
 - 46개 로스쿨 법학전문도서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태이니가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국대협)와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사대도협)에 공문을 먼저 보내 전문위원을 추천 받으면 좋겠다.(사무총장)
 - 현장실무자, 교수로 구성해서 기준을 작성한 다음 46개관에 공문을 보내자고 함.(김태식 위원)
 - 국대협에서 3명, 사대도협에서 3명, 교수 2명으로 구성하자. 교수는 홍명자교수와 정동열교수로 제안함.(사무총장)
 - 정동열 교수는 직접 신청한 대학의 도서관장이라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윤희운 위원장, 문영철 위원장)
 - 위원 모두들 윤희운교수를 추천함.
 - 회의는 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함.
 - ※ 이후 홍명자 교수가 참여를 고사했고 11.12(월) 협회 사무국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3) 정관개정 방향
- 각 협의회와의 관련성을 보다 치밀하게 연구하여 개정하고 회장 직선문제와 지구별협의회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하는 등 전면 개편할 예정임.
 - ※ 다음번(총회 이전) 기획정책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임.
- 4)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의 명칭변경 건
- 도청과 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들도 소속에 따라 갈등이 많음.(김지봉 위원)
 - 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협회에 법률자문을 두도록 권고함.(윤희운 위원장)

협의회소식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22차 실무자 워크숍 개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10월 25일~26일 양일간 “대학도서관의 이미지 변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2차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도서관의 사서, 업체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 주제강연
 - 대학도서관 마케팅 전략
/이상복(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협의회 체제를 통한 대학도서관 마케팅활성화 방안
/김기세(배재대학교 입학관리과장, 전 사립대학교서관 협의회 사무국장)
 - 대학도서관 마케팅, 자료와 이용자를 링크하기
/김지홍(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 주제정보지원팀)
- 신기술동향
 - 진화하는 웹 환경과 도서관
/이승준(미르테크 웹개발 팀장)
 - e-CIP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유정선(대양정보 대표이사)
- 해외연수보고
 - 2007 미국서부 대학도서관 탐방보고
/김승현(세명대학교 민송도서관 총괄과장)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우리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는 11월 2일(금)과 3일(토) 양일간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각 관종별 도서관에서 시행했던 사례를 통한 도서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대구·경북지구의 공공·대학·학교 도서관의 사서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 프로그램

- 사서직의 지적 전통(기조발표)
/박준식(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대구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문화활동 - 서부도서관의 독서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백희순(대구서부도서관 열람봉사 계장)
- 분천 웅달샘도서관 지원활동을 통한 지역봉사
/권미숙(경북문화도서관 평생교육담당)
-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찾기 프로그램 운영
/박미진(대구불로중학교 사서교사)

[사진 및 기사제공 : 대구·경북지구협의회]

국내 소식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 열려

지난 11월 2일(금) 14시, 학교도서관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지난 9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개최된 이번 집회는 우리협회를 비롯한 공대위 참여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 사서교사,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사서·교원·시민단체



의 회원 등 약 500여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경기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대진대, 성균관대, 명지대, 전주대, 전북대, 숭의여자대학, 대림대학,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집회는 유인물 배포, 대학생들의 문화공연, 투쟁결의서 낭독, 공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투쟁 결의서

학교도서관은 21세기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다. 유네스코는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국제단체에서도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잠재력을 인정하여, 학교도서관 설치와 전문가에 의한 운영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 50여년에 이르도록 학교도서관이 아예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먼지만 가득한 책 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2000년 초반부터 NGO 단체의 활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이끌어 내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고, 학교도서관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확충하는데 그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서교사의 배치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또 다시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서교사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사서나 학부모 혹은 자원봉사자 등 누구라도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문만 열어 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독서교육이나 도서관활용수업 등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서교사 혹은 담당교사들에게 그런 일은 필요 없으니 학교도서관 관리나 똑바로 하라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 사서교사 혹은 담당교사들이 학교도서관 운영은 물론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서교사나 담당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도서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스

러우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횡포를 막고,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교육계나 학교도서관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독단적으로 발의하였고, 이 법안의 문제점 특히, 사서교사의 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여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특히,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학교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악법중의 악법을 만들어 버렸다. 이는 국민의 열망과 전문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하수인의 역할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무엇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도서관의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도서관법’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 때에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 사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고, 교육은 물론 학교도서관을 황폐시키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도서관법’에 명시된 대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즉각 개정하고,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도서관법’에 명시된 대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즉각 개정하고,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라.

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발전은 물론 학교도서관 발전을 저해하고,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대한 수정안(국회 교육위원회)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국회로 하여금 잘 못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마인드가 전혀 없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즉각 교체하고,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라.

상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도서관 관련 학계, 학부모 단체, 학생, 교원단체 등을 총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적시에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7. 11. 2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교도서관정책포럼 / (사)한국도서관협회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 전국전문
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대위 참여단체의 대표자 발언 등으로 약 3시간여 동안 계속되었다. 집회에 참여한 현직 사서교사 약 50여명은 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본인들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찢으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개선 및 사서교사 확충을 촉구하였다.

한국 · 독일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개최



(사진제공: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권경상)은 10월 24일(수) 국제회의장에서 독일국립도서관 · 주한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새로운 디지털정보환경에 대응하고, 국제적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 독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디지털정보시대의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르겐 카일 주한 독일문화원장을 비롯하여 도서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과 독일 국립도서관에서 추진되는 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하여 주제 및 사례발표와 패널토의, 참석자 질의 순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양국의 디지털도서관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프로그램

- 주제 및 사례발표
-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방안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 변화하는 정보서비스: 독일 국립도서관의 새로운 도전들
(/라인하르트 알텐히너(독일국립도서관, IT 총괄)
-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고영만(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패널토의
- 김성희(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장윤금(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홍은택(네이버 부사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매뉴얼」 활용 워크숍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이숙현)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겨울, 여름 방학 독서교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교실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10월 24일(수) 현장 적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매뉴얼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책임연구원: 대림대학 황금숙 교수)으로 추진된 것으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매뉴얼 개발을 담당한 연구진들이 워크숍 강사진으로 직접 참여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터키 문화 체험전’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한국과 터키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16일(금)부터 12월 9일(일)까지 터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양탄자 타고 터키가기’ 전시회를 이스탄불 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터키의 자연풍경, 유명 건축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미니아튀르’, 파피루스 위에 그린 유채화, 마블링 등의 미술 작품, 터키의 그림책과 어린이책, 터키와 이슬람 관련 도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터키의 작가 오르한 파묵의 작품 등 170여 권의 도서, 이국적인 터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통 가



〈사진제공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옥의 응접실, 전통 의상, 도자기, 공예품, 터키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미술 체험 공간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동서양의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터키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원정보도서관, 일본 치요다구립도서관 국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노원정보도서관(관장 : 박미영)은 11월 12일(금) 일본 동경 중심구에 위치한 치요다구립도서관(관장: 다나카 요시히로, <http://www.library.chiyoda.tokyo.jp>)과 국제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① 도서관 업무 시스템을 비롯한 Web 도서관 시스템의 운영기술 공유, ② 홈페이지에서의 관련기술의 공유, ③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기획 이벤트의 공동 개최, ④ 자료의 기증 및 각 도서관의 소장목록의 공유, ⑤ 각

도서관 관련 발행물의 상호 교환, ⑥ 직원의 상호 파견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업무 및 자료의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을 포함하며, 국제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이용자 서비스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및 기사제공 : 노원정보도서관]

대구중앙도서관, 자료보존실습 워크숍 개최



대구중앙도서관(관장 이영한)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10월 31일(수) 대구·경북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자료보존실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대구·경북지역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총 25명이 참석하여 자료보존에 대한 이론강의 및 훼손자료의 수선, 복원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자산인 자료가 습도, 온도와 같은 서고보존 환경 뿐 아니라 기타 여러 물리적 요인에 의해 많은 훼손이 유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워크숍은 자료의 유형별 보존대책과 홍수, 화재 등 재난시의 대처 요령과 자료의 응급처치 방법 등을 소개하고, 훼손자료의 수선, 복원 방법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지역 도서관에서는 그간 훼손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했던 유용한 자료를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선·복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자료이용 및 자료보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및 기사제공 : 대구중앙도서관]

안양석수도서관, 행정자치부 주관 제1회 혁신학습동아리 전국대회 우수상 수상

안양석수도서관(관장 : 정문택)의 학습동아리 운영사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07지방자치단체 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0월 18일(목) 고양시 국제전시장(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1회 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로서 전국 246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예선 및 본선을 거친 시도별 최우수사례 16건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석수도서관에서는 이번 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 “R(연구)하고 G(성장)하고 KS(지식공유)를 실천하는 도서관 학습공동체”란 주제로 도서관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습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책읽기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한 도서관요약서비스, 안양시 발간 자료 수집과 이미지원문서비스 등 주요성과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혁신 실천의지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및 기사제공 : 안양석수도서관]

익산시의회,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

전북 익산시의회(의장 : 김정기)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익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임영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읍·면·동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작은 도서관은 방과 후 방치돼 왔던 빈곤층 자녀가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대안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문화혜택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서 “조례 제정은 작은 도서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11월 13일재]

서대문구, 어린이 전용 도서관 문열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 현동훈)에서는 약 8,000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열람공간, 모듬공간, 검색공간 등을 갖춘 어린이 전용 도서관 ‘가재울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은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이진아기념도서관과 연계한 통합회원관리 등 이진아기념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자료를 수서하고, 소장된 자료의 적극적 이용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주민의 독서·정보길잡이 역할은 물론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해 지역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일보 11월 2일재]

수원영통도서관 새롭게 리모델링 재개관

수원영통도서관(팀장 : 박원복)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11월 22일(목) 새롭게 단장하여 재개관한다. 이로써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영통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자료실과 디지털실의 통합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자료를 찾는 독서인의 편의를 높였으며, 어린이실 안에 유아실도 확장하였고, 도서관 이용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일반열람실을 346석으로 확장하고, 휴게실과 전시실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 뉴시스 10월 19일재]

제주도서관, 개관 반세기 기념행사

제주도서관(관장: 현상숙)은 11월 1일(목) 개관 50주년을 맞아 오전 11시 도서관 3층 강당에서 '제주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 및 제주도서관 50년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1957년 제주시 삼도동 235번지에 '제주도립도서관'으로 문을 연 제주도서관은 제주도 최초의 근대식 공공도서관으로, 1966년 1월 제주시 이도 2동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같은해 3월 '제주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개관당시 장서가 806권에 불과했던 제주도서관은 해마다 장서를 늘려 2006년 현재 529석의 열람석, 172,380권의 장서, 4,095점의 비도서자료, 9,225점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1961년 개관당시의 연 17,000여명에서 313,570명(2006년, 개관일수 334일)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연합뉴스 10월 31일재]

인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06년 11월 문을 연 연수 어린이도서관(관장: 김용우)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해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강연과 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쳤다. 11월 8일(목), "내아이의 마음, 책을 통해 헤아려

보자"라는 주제로 하계독서치료연구소 김정선 소장의 강연, 18일 국악놀이 "호랑이를 만난 놀부"의 공연 등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개관 1주년 기념 뿐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출처: 일간연예스포츠/이지폴뉴스 11월 6일재]

경기 이천시립도서관, 개관10주년 기념 북아트 전시회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는 이천시립도서관이 개관 10주년 기념 북아트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천시립도서관 북아트 전시회(11.1~11.20)는 정보나 문학작품을 담아내는 단순한 책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종이와 천, 깃털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예술적 시각에서 책을 표현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형 예술작품으로서 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출처: 일간연예스포츠/이지폴뉴스 11월 8일재]

양구, 책사랑 축제

"생각 쑥쑥 마음 통통" 양구 책사랑 축제가 11월 8일(목)과 9일(금) 문화복지센터 광장과 양구도서관, 비봉초등학교 체육관 등에서 열렸다. 양구교육청(교육장: 김두경)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등학생들의 독서골든벨 대회, 시화독후감 캐릭터그리기 등 독서결과물 전시회, 간행물 전시회, 도서관은 내친구 등 열린 한마당 잔치로 펼쳐졌다. [출처: 강원일보 11월 9일재]

상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중국 풍경속의 유머전」 개최

상명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김재진)에서는 재상명 외국인 유학생 장학기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시사만



화가 고정일(상명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의 작품 50여점(풍경화 40여점과 캐리커처 10여점)을 모아 「중국 풍경속의 유머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우리와는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중국문화를 카툰작품(Cartoon)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체험 및 시도를 통한 소통의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장소는 도서관내 책사랑 갤러리이며, 전시기간은 11월 19일(월)부터 12월 7일(금)까지이다.

기사제공 : 상명대학교 중앙도서관

2007년 교육연구정보서비스망(ERISNET), 협의회 총회 개최

2007년 교육연구정보서비스망(ERISNET)협의회 정기총회가 11월 2일(금) 한국교원대학교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2007년도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경과 보고, 2008년도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ERISNET 협의회 회칙 개정(안), ERISNET 학술정보이용 확대 방안, DB공동 구축 및 자료 기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개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 황대준)은 2007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를 정리, 전산, 참고봉사 및 열람, 상호대차, 수서 분과별로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정리분과

/일시 : 2007년 11월 16일(금)

/장소 : KERIS 15층 KERIS홀

· 전산분과

/일시 : 2007년 11월 23일(금)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 참고봉사/열람, 상호대차, 수서분과

/일시 : 2007년 11월 26일(월)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일산호수공원서 “학교도서관 책축제” 열려

‘제2회 고양 학교도서관 책축제’가 지난 10월 24일(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독서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고양시 107개 초·중학교가 참여해 퍼즐로 책 표지를 만드는 ‘퍼즐따라 책 속으로’, 학생들이 동화 속 캐릭터로 분장하는 ‘내가 책 속 주인공이라면’ 등 다양한 독서체험놀이가 진행됐다. 또 독서만화, 독서엽서 등의 독후 활동물 전시와 고양시 학교도서관 인기도서 1~10위를 소개하며 동화속 내용을 재구성한 8편의 인형극 공연도 펼쳐졌다.

출처 : 연합뉴스 10월 25일자

함안군, 예곡초등학교 ‘꿈꾸미’ 도서관 개관

지난 11월 16일(금) 함안군 칠원면에 위치한 예곡초등학교(교장 : 김복수)에서는 조현덕 함안군교육장, 권병철 함안군의회의원, 지역사회 여러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학예발표회와 ‘꿈꾸미’ 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총 176㎡(교실 2칸)의 면적에 총 2,800여 권의 각종 도서를 비치하고 빔프로젝트, 음향기기 설비와 함께 냉난방기 및 각종 편의시설과 인터넷 활용 컴퓨터 등을 갖추어 디지털 도

서관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서관의 내부는 모두 학습공간, 꿈꾸미 공연장, 열람공간, 문헌자료 공간, 대출반납공간, 그림마당 공간, 정보검색 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출처: 마이뉴스코리아 11월 17일제

경기소방학교, '소방전문 방재도서관' 개관

경기소방학교(학교장 : 박호선)가 최근 전국에서 최초로 '소방전문 방재도서관' (<http://ggfire.goldis.go.kr>)을 개관했다. 소방전문도서 약 6,000권을 갖춘 이 도서관은 경기도 30여 개의 소방서가 도서기증운동을 벌여 만든 것으로 철학, 사회과학서적 등 총 1만여 권의 책이 갖춰져 있다. 전국 소방학교 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한 이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방재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한 번 빌리면 2주간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우편으로도 빌려준다. 인근 주민들은 소방자료 뿐 아니라 일반 소설까지 빌려갈 수 있다.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해 도서관 뿐 아니라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30여 명 이상이 모여 단체로 신청하면, 하루종일 공기호흡기 사용법과 소화전 사용법, 간단한 화재 진압법 등을 소방학교 교수들이 직접 소개해 준다.

[도서관 방문 및 교육문의: ☎ 031-329-0313], 출처: 조선일보 11월 5일제

50번째 병영도서관 개관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을 위해 병영 도서관 건립 운동을 펼쳐온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가 지난 10월 23일(화) 국토 최전방의 육군 제21사단에 백두공병 도서관(강원도 양구 소재)을 개관하였다. 병영 도서관 건립 운동은 1999년 7월 육군 제1사단에서 시작됐다.

“군인이 무슨 책이냐”라는 편견을 깨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단장으로 집무하던 야전 병커를 개조해 최초의 대대급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병영 도서관이란 신조어가 생겼으며 이번 개관으로 50번째 병영도서관의 개관을 맞았다. ‘군대(軍隊)를 군대(軍大)’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병영 도서관 건립 국민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와 일간스포츠(IS) 외에도 교보문고가 2004년부터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헤어디자이너 박준씨 역시 이 운동에 9년째 참여하고 있다.

출처: 일간스포츠 10월 25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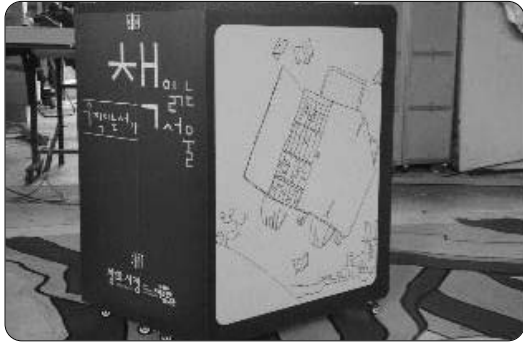
옥천군, 2008년 도내 최초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

충북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도서관'을 구축한다. 5,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사용자가 형평성있게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08년 5월부터 청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모아 '도서'와 같은 개념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선 건축·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캐드(cad) 프로그램을 비롯해 포토샵(photoshop), 플래시(Flash) 프로그램 등을 구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동시접속자 50명을 기준으로 개인의 컴퓨터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서버에 접속,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대출해 사용한 후 반납하면 다른 이용자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입비용을 줄이고, 정품소프트웨어 확립 및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출처: 뉴시스 10월 30일제

2007에서는 황석영, 김훈의 기조강연으로 미국,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출판인이 참석하였으며 ‘아시아 문학의 매력과 잠재력’, ‘아시아 역사 콘텐츠의 다양성과 공통성’, ‘아시아 출판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2006년 ‘청년정신’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되어 커다란 호응을 얻었던 ‘파주 북시티 책 잔치’는 올해는 ‘책으로 만든 산’을 주제로, 출판사들이 직접 독자와 만나는 ‘책거리’, ‘무박이일 독서캠프’, ‘무한도전 12시간 책읽기’, ‘책 그리고 맛있는 수다’, ‘출판인과 아침’, ‘책나라여행’, ‘출판도시 건축 투어’, ‘출판도시 책 만드는 현장 견학’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출처: 데일리안 10월 24일지]

서울문화재단 ‘움직이는 서가’ 프로그램 추진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 안호상)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독서캠페인 <책 읽는 서울>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서가’ 사업을 추진한다. ‘움직이는 서가’는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을 위한 학급문고 지원사업으로, 책 모양의 움직이는 서가에 도서 100권, 독서노트 100권을 지원하고, 기존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해 온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 독서토론 전문가와 함께하는 ‘열린독서토론’,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움직이는 서가’는

총 20개 학교에 지원될 예정이며, 이중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은 9개 학교를 시작으로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움직이는 서가’ 지원을 받은 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책 읽는 서울’의 독서교육 서포터즈로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사업문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팀, 전화: 02-3290-7042).

[기사 및 사진출처: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강원도 태백 폐광촌 철암마을 철암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들과 김동찬 관장, 아름다운재단 ‘민들레홍씨상’ 수상



<사진제공 : ©철암어린이도서관>

강원도 태백 폐광촌 철암마을 철암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들과 김동찬 관장이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중)의 ‘아름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2007년도 ‘민들레홍씨상(일반시민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철암 어린이도서관이 태백시의 도로확장공사와 무상 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에 직접 나서 건축비 2억5천만원을 모으는 한편 도서관 내부 설계 과정에도 참여해 지난 7월 14일(토) 개관한 새로운 철암 어린이도서관 완공에 주도적으로 나선 점을 평가받았다. 시상식은 11월 13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렸다. [기사출처: 아름다운재단, <http://www.beautifulfund.org/>]

김해시, 이달의 우수공무원에 장유문화센터 운영과 차미옥씨 선정

경남 김해시는 11월 1일(목) 장유문화센터 운영과 운영담당인 차미옥씨(사서주사)를 이달(11월)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김해칠암도서관에서 근무하다 이후 현재까지 장유출장소 장유문화센터 운영과 운영담당을 맡고 있는 차미옥 씨는, “책읽는 도시 김해” 사업에 적극 앞장서는 한편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제 1회 대한민국 도서관축제’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범시민 독서환경 조성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또한 기상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김해시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에서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 수집능력으로 재해 사전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출처 : 뉴시스 11월 1일자]

국외소식

아리랑 TV, 다큐멘터리 “Thank you Small Library” 방송

아리랑 TV는 10월 27일 오후 11시 Arirang Speical에서 가나의 어린이들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스텝재단(ST-EP)과 가나 정부가 만든 작은 도서관에서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Thank you Small Library”를 방송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스텝재단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빈곤의 퇴치를 주장하는 단체로 한국인인 도영심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텝재단에서 진행하

고 있는 “Thank you Small Library” 프로젝트 과정을 보여준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조금 떨어진 단파와 아보코비 두 마을에 책을 가득 실은 봉고차가 들어오고, 책상과 의자가 놓여지면서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그 도서관에서 어린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송은 아리랑 TV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보기로 무료로 볼 수 있다.

[출처 : 아리랑 TV, <http://www.arirang.co.kr/>]

미국 의회도서관과 유네스코, 세계디지털도서관 사업



[출처 : <http://www.worlddigitallibrary.org/>]

미국 의회도서관이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세계디지털도서관 사업(World Digital Library Project)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전세계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디지털 자료화해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지난 2005년 6월 제임스 빌링턴 미국 의회도서관장이 유네스코에 세계디지털도서관 사업을 제안한 이래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재정지원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초까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가입은 무료이고, 자료 내려받기도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브라질 국립

도서관, 이집트의 국립도서관 및 기록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美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소장품 8만점 사라졌다



(출처 : <http://www.reagan.utexas.edu/>)

LA북서쪽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다수의 소장품이 사라져 파문이 일고 있다. 11월 8일 연방기록청(National Archive) 감사관에 따르면 레이건 기념 도서관의 10만여점의 소장품 중 8만 여점이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 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분실 혹은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이 기념품들의 반출입 기록 등이 지켜지지 않는 등 보관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제보자들은 이들 소장품에 접근 가능했던 인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기록청의 수전 쿠버 대변인은 “도난품에 대한 심층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일반 박물관과 같은 보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적다”며 대통령 도서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 : 중앙일보 11월 9일자)

IFLA, 2008퀘벡세계도서관정보대회 논문 모집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 주최하는



2008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에서 발표할 논문에 대한 모집이 시작되었다. 2008년 8월 10일-14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될 이번 대회에 참여, 혹은 발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IFLA 웹사이트에서 부회 및 분과별 주제, 원고마감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IFLA, World Guide to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발간

IFLA는 『World Guide to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제3판, 완전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전세계의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약 900여개 대학 및 단체의 1,500여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으며, 교직원, 학생,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기간과 수준, 입학과 입학시의 조건, 등록금과 수업료, 도서관과 시설, 계속교육 등 각 대학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http://www.ifla.org/V/pr/saur128-129.htm>)

호주 ABC 방송국, 드라마 “Librarian” 방영

호주 ABC 방송국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서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Librarian”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 방송한다. 도서관장을 포함한 9명의 사서와 2명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한 회가 약 20여분 정도이며, 인터넷으로도 시청



할 수 있다.

또한 드라마의 인터넷사이트의 구성도 등장인물 소개는 Biography, 드라마 보기는 Information, Fiction은 드라마 각 회의 줄거리 요약, Nonfiction은 도서관과 책과 관련된 퀴즈 풀기 등 각 메뉴구성도 흥미롭다. [출처: <http://www.abc.net.au/tv/librarians/#/films/>]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총합전 열어



일본도서관협회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3일간) 제9회 도서관총합전을 개최하였다. 전시회는 “The Dynamism of Library”라는 주제로 파시피코 요코하마 전시홀에서 열렸으며,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관계

자와 일반 기업체 직원, 개인 등 총 23,090명이 입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http://www.j-c-c.co.jp/>]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포털 “PORTA” 서비스 시작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10월 15일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포털 “PORTA”를 공개하였다.



PORTA는 이용자가 일본의 디지털 정보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검색 포털로, 이용자들은 “PORTA”를 통해 8백만 데이터를 소장하고 있는 20여 종류의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틴어로 출입구의 뜻을 지닌 “PORTA”는 검색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웹정보 검색 및 다양한 개인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출처: <http://porta.ndl.go.jp/>]

베트남, 하노이 국립도서관에 한국실 개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하노이 국립도서관 내에 ‘한국실 (Window on Dynamic Korea)’를 개관한다. 260㎡ 규모의 한국실에는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한국의 대표 문학과 전래동화, 한국사 등 도서 7천여권과 ‘서편제’, ‘대장금’ 등 영상자료 300편 등이 비치된다. 한국실 개관을 위해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는 도서 5천권과 영상CD 100개를 지난 10월 18일 기증했다. 한국실 개관식은 11월 24일이다.

[출처: 연합뉴스, 국정홍보처]

칠레, 페루서 약탈한 책 3,778권 126년 만에 반환

칠레는 전쟁으로 약탈했던 페루 고서 3,778권을 126년 만에 반환했다.

두 국가는 19세기부터 국경분쟁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칠레는 당시 페루와 볼리비아등의 영토를 빼앗았으며, 칠레는 1879~1883년 전쟁당시 1881년 리마를 점령하고 국립도서관에서 16세기에서 19세기에 편찬된 그리스어와 라틴어,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 쓰여진 고서와 식민지 시대 지도들을 약탈해간 바 있다. 이번 도서반환은 양국의 우호 관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뉴시스 11월 7일재]

케냐엔 '낙타이동도서관' 이 있다



[출처: camelbookdrive.wordpress.com/]

아프리카의 케냐에는 낙타를 이용한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1996년, 케냐의 북동부 소말리아와의 국경에 가까운 가리사지역에서 낙타 3마리로 시작된 이 도서관은 현재 낙타가 12마리로 늘었으며, 낙타들은 매일 4개조로 나뉘어 오지 주민들에게 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는 현재 파라(Farah)씨가 사서로 일하고 있다. 낙타도서관이 마을에 도착해 마을의 큰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책을 펼쳐놓으면 맨발의 아이들

과 마을주민들이 찾아와서 필요한 책을 빌려간다.

이 도서관은 BBC 라디오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으며, 작가 마샤 해밀턴은 '낙타이동도서관'을 알리고 책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Camel Book Drive라는 웹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일간스포츠 11월 9일자, <http://camelbookdrive.wordpress.com>]

향후 도서관계 행사

제10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디지털도서관, 그 한계를 넘어) 개최

- 일시 : 2007년 11월 29일(목) 09:00~17:20
- 장소 : COEX 그랜드볼룸(104호, 105호)
- 주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도서관협회
- 후원 :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 주요테마 : Digital Information Service/ 미래 디지털 도서관의 구상과 기획의 창출/Information Commons/Digital Library Case Study/Digital Collection System/Digital Collection Policy

2007 한국전자출판산업전 "Digital Innovation of Book"

- 일시 : 2007년 11월 22일(목)~24일(토)
- 장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 주최 : (사)한국전자출판협회
- 주요행사 : 전자출판포럼, 전자출판산업전시, 오픈북페스티벌, 전자책 독서퀴즈대회, 북토크쇼, 디지털 작가상, 우수 u-book 시상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 독서와 여가생활을 위한 연속특강 <책은 내 운명>

- 일시 : 2007년 11월 24일(토)~12월 14일(금)
- 장소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시청각실
- 주최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 후원 : 문화관광부

■ 강좌일정

- 제1강 11월 24일(토) 오후 2시 <나와 책> 강사 : 공선옥 (소설가)
- 제2강 11월 29일(목) 오후 7시 <책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다> 강사 : 정운현(친일문제전문가)
- 제3강 12월 6일(목) 오후 7시 <책에서 피어나는 예술적 상상력> 강사 : 조이한(미술평론가)
- 제4강 12월 12일(수) 오후 7시 <책읽기가 바꿔놓은 내 인생> 강사 : 정용실(아나운서)
- 제5강 12월 14일(금) 오후 7시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책읽기> 강사 : 손석춘(새사연 원장)

[문의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 02-960-1959, <http://www.L4D.or.kr>]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7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 학술발표회

- 일시 : 2007년 11월 23일(금)~24일(토)
- 장소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의학습관
- 주제 : 도서관과 Information Literacy

신설도서관

구미시봉곡도서관



- 개관 : 2007년 11월 1일(목)
- 면적 : 4,825.97㎡
- 관장 : 구미시봉곡도서관장(분관장 : 최희경)
- 주소 : 경북 구미시 봉곡동 197번지
- 전화 : 054)457-3006
- 홈페이지 : <http://www.gumilib.or.kr>
- 휴관일: 신청·구정·추석 연휴
- 특징 : 봉곡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에 초점을 맞춰 전체 장서 18,000여권의 72%인 12,800권이 어린이도서이며, 영·유아 관외대출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젊은 영·유아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두 동의 쌍둥이 건물이 지하서고와 3층이 브릿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B동**은 일반열람실과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강의실, 사무실, **A동**의 어린이도서관은 유아자료실, 아동강의실, 책놀이터, 저학년자료실, 고학년자료실, 탐구학습실로 구성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3층**에는 종합자료실이 있음.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온돌마루로 되어 있어 무엇보다 환경이 쾌적하고 책읽기에 편안함.

구미시선산도서관



- 개관 : 2007년 11월 1일(목)
- 면적 : 부지 4,576m, 연면적 2,942.27m²
- 행정체제 : 구미시도서관 선산분관
- 관장 : 안중은(본관 및 분관겸임)
- 주소 : (730-804)경북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18-3
- 전화 : 054)482-2006 , 054)450-5784
- 홈페이지 : <http://www.gumilib.or.kr>
- 휴관일 : 매월 1·3째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 특징 :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면서 건물외관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 하늘을 직접 볼 수 있는 건축물로 선산지역민들에게 문화공간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지하1층, 지상 3층규모. 일반도서 45,685권, 아동도서 23,289권(구선산도서관 장서 53,745포함)을 갖춘,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 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에는 전시공간을 포함한 넓은홀과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강당, 휴게실, 신문열람공간, **지상2층**에는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사무실, **지상3층**에는 일반열람실, 하늘과 함께 하는 야외휴게실 하늘정원이 있음.

천안시중앙도서관 아우내분관



- 개관 : 2007년 10월 9일(화)
- 면적 : 대지면적 18,825m² / 연면적 4,1456.64m²
- 관장 : 천의교(천안시중앙도서관장), 심광택(아우내도서관 분관장)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46-5
- 전화 : 041) 521-2880~1
- 팩스 : 041) 521-2885
- 홈페이지 : <http://www.jungang.or.kr>
- 휴관일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및 국경일
- 특징 : 지하1층, 지상2층 규모, **지하1층**에는 다목적홀, 노인대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기계실, **지상1층**에는 아동실, 농업기술센터지소, 중대본부, 서고, **지상2층**에는 종합자료실, 신문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세미나실, 보존서고 등이 있음.